

# 병술년을 보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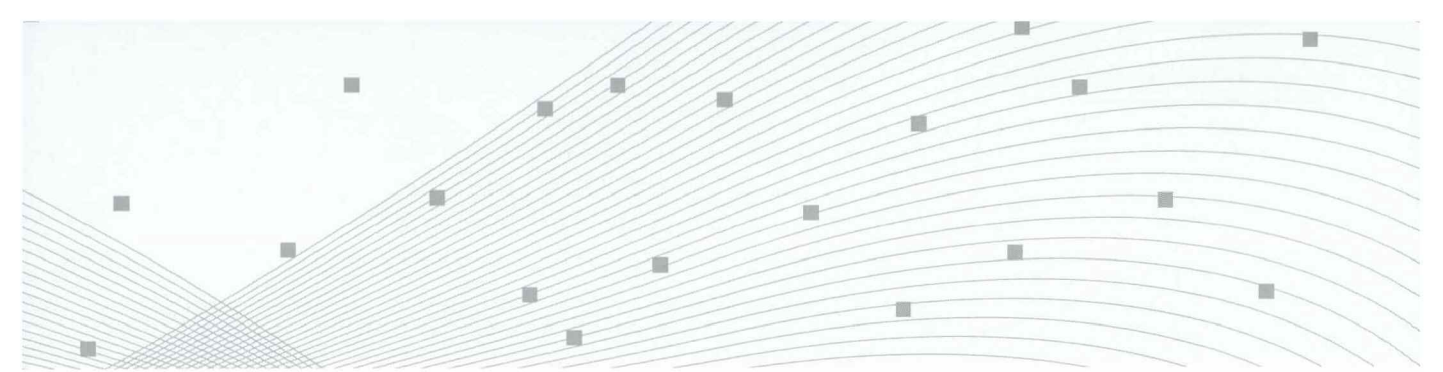
김만섭  
사) 한국오리협회장

**매년** 그러하듯이 다사다난했던 개띠해도 서쪽 산을 넘어가고 있다. 돌이켜 보면 금년에는 유별나게 바쁘기만 하였지, 발전된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우렁찬 화합의 함창으로 오리업계의 발전과 협회의 진보를 기대하였으나 아쉽게도 희망사항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 일부 업계간의 갈등과 비협조는 수그러들 줄 모르고 매일 매일 목청소리만 드높게 들리고 있고, 서로 간의 발목잡기는 지속되고 있어서 금년에 하고 싶었던 GPS사업, 종오리업 등록제, 데이터베이스사업 등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언제 끝이 날지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완전히 오리무중이라 할 수 있으며 1차 책임은 사실여부를 떠나서 협회장인 나에게 있을 것이고, 다음은 대립하는 업계에 있을 것이며, 또한 오리관련 종사자라고 할 수 있다.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각성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오리업계도 발전해 보겠다고, 그리고 협회 회원들 간에 단합을 하겠다고 NGO로 출발한지 어언 1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성년에 들어선 단계이다. 우리도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일 때가 되었다고 자부해 보지만, 성숙된 모습은 커녕 아직도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유년기에 머물고만 있는 실정이다. 빨리 철이 들어서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겠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농림부에서는 우리업계의 자조금사업 진출을 예상하여 금년에 2억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농림부 담당자의 성의도 저버리고, 오히려 예산집행을 못한 책임과 불용 처리된 사유서를 작성 보고해야 하는 등 짐만 안겨주는 격이 되고 말았다.



출입통제와 운송차량의 소독, 장비와 작업도구의 소독, 분변의 처리 준칙 준수, 각종통계조사의 신속 정확 보고 등에 적극 협조하여 유사시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疑似(의사)AI상황이 하나의 기우로서 끝이 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러는 동안 조용히 넘어 가는 듯 하던 조류인플루엔자가 2006년 11월 22일 기어이 발생되었다. 전북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에 있는 육계종계농장 13,000마리가 고병원성AI(H5N1형)으로 판명 되었다는 보도가 각종 신문 방송을 통하여 대서특필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는 어찌되었건 간에 서로 협심하고 온 힘을 다하여 확산을 막아야 한다.

모든 회원이 잘 알겠지만 예찰 활동을 잘하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다. 출입통제와 운송차량의 소독, 장비와 작업도구의 소독, 분변의 처리 준칙 준수, 각종통계조사의 신속 정확 보고 등에 적극 협조하여 유사시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疑似(의사)AI상황이 하나의 기우로서 끝이 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한편 금년 들어서 하나의 성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회원의 도움으로 명실 공히 새로운 청사를 교통요지에 마련하였으며, 직원이 증원되어 의욕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오리마을지”를 월간지로 발간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리소식”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년에는 큰 불황 없이 넘어 갔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기대와 희망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금년에는 불협화로 마무리를 한다 해도 내년 황금 돼지 년인 정해(丁亥)년에는 서로 간에 화합하는 분위기로 돌아서서 모든 사업 추진에 돼지꿈을 꾸는 것과 같이 술술 막힘없이 풀릴 것을 기대하고 또 믿어 본다.

끝으로 큰 문제없이 금년을 마무리하게 도와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바이다.